

# 신중년 남녀세대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김건희\*, 홍상욱\*\*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영남대학교 교수\*

##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f middle-aged men and women on retirement readiness

Geon-hui Kim\*, Sang-Ook Hong\*\*

Department of Family Residence a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신중년 남녀세대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지 전체와 하위변인인 정서적, 정보력, 물질적, 노후준비도의 하위변인인 신체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평균이 높았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모형1에서 남자는 가족형태, 생활실태, 최종학력, 여자는 생활실태, 월평균수입, 모형2와 모형3에서는 남녀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모형2는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사회적지지, 모형3은 생활실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녀 모두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주요 변인임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중년 세대 특히, 여성을 위한 사회적지지의 방안 모색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 : 신중년 세대,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 상대적 영향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retirement readiness in the prudent male and female generation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retirement readine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verall social support and the subvariables of emotional, intelligence, material, and retirement readiness, the physical. especially, Women had higher averages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retirement readiness than men. second, The relativ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retirement readiness is In model 1, men have family type, living conditions, and final education, and women have living conditions, average monthly income, In Model 2 and Model 3, both men and women showed the same trend. Model 2 shows living conditions, average monthly income, social support, Model 3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ving condition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Namely, Both men and women recognized that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had the greatest relative effect on retirement readiness, which was the main variable. Through this study, the middle-aged generation especially, It is significant in suggesting the need to find ways of social support for women and to increase resilience.

**Key Words** : new middle aged, social support, Resilience, retirement readiness, relative influence

Received 04 Oct 2022, Revised 12 Oct 2022

Accepted 19 Oct 2022

Corresponding Author: Sang-Ook Hong  
(Yeungnam University)

Email: sanguk@yumail.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에 두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20년 0.81명으로 OECD(2020년 기준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0명대의 유일한 국가로서(이태일리, 2022)[1], 노인인구 비율은 7.2%(2000년)에서 20.3%로 예상되며, 노년 부양비는 10.2명(2000년)에서 38.2명(2030)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동시에 GDP 대비 노인에 대한 전체 공적 지출은 2.7%로 OECD 국가 중 35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다(한외신문, 2021)[2]. 이러한 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부양인구와 부양비 증가를 가져오나 공적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개인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조기 퇴직으로 경제활동 생산인구가 잉여인구로 전락하는 단·장기적 현상이 사회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세계적인 코로나 장기화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안보적 위협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의식변화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가족 부양의식 약화를 가져와 남은 노후를 위해 생활비 보탬의 사유로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인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통계청, 2021)[3], 이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의 삶인 신중년 세대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선제적 노후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한외신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중년(53세~61세) 남녀세대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어떠하며,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 신중년 세대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중년 세대의 시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문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중년 세대의 남녀별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신중년 세대의 특징

신중년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능동적 취향을 실천하는 젊고 트렌디한 삶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생활화하는 경제적 자립 세대이며, 경제활동의 주역이면서 소비 주체이기도 한 세대다(이국권, 2020)[4]. 그러나, 국내·외 사회변화와 경제 저성장으로 실직과 퇴직, 조기 은퇴에 직면함으로 심리·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세대”, “긴 세대”로 불리며,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최초 세대고 경제적 노후 준비가 마련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부담 세대(양지훈, 권미애, 2018)[5] 이면서, 초고령화 사회의 재 생산·경제활동인구인 주역 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경향을 띤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2 선행연구

신중년 남녀세대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노후준비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준비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노후설계, 노후대비, 은퇴준비, 퇴직준비, 퇴직계획 등의 의미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노후준비도를 선제적 준비로 노후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도로 박주희(2016)[6]는 보았고, 홍서연, 김미량(2020)[7]은 노년의 성공적 삶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할 요소로 정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노후준비도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명아 등(2017)[8]은 신중년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요, 심리적·정서적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은영(2015)[9]이 정의한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관계적, 여가적, 신체적 노후준비로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들은 주로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건강상태, 근무년수, 퇴직기한, 결혼유무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 검증이나 상관관계, 영향성을 알아보고 있다. 강미희(2020)[10]는 일반적 특성에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노년기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정경화, 김기승(2020)[1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가구소득, 근무년수, 퇴직기한 등의 특성에 따른 중년재직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사회적지지는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Cassel(1974)[12]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러 경로로(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부터 제공받는 모든 도움을 강미희(2020)는 사회적지지로 보았고, 임경임(2012) [13]는 개인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감정적, 행동적인 면에서 받는 도움을 긍정자원(인정, 정보, 물질)으로 정의하였다. 정재갑(2020)[14]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지에 대한 지각으로 사회적·개인적 상황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황주경, 강순희(2021)[15]는 신중년 구직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재취업 욕구에 부분 매개한다고 하였고, 성공적 노화 인식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이상주, 2021)[16].

회복탄력성은 개인에게 닥쳐온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이며 다시금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이고, 훈련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김주환, 2021)[17]. 정경화, 김기승(2020)은 위기 상황 이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상황을 변화,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개념화하면서, 중년 재직자의 퇴직 태도와 준비에 회복탄력성 간의 인과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이 높은 사람이 퇴직 태도와 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정경화, 2020)[18].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D 광역시와 G 도의 G 시, Y 시, A 시에 소개하는 근로자 신중년 남녀(53세~60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임의표집하였으

며, 응답자료가 연구에 사용되는데 동의를 한 자발적 참여자가 직접 설문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학 통계적 특성(8문항), 사회적지지(25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 노후준비도(32문항)로 구성된 총 92문항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문항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과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2021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350부 중 무응답 및 불성실 답변이 있는 50부를 제외한 30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t$ -검증, 기술통계 분석,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집중경향치와 분산도의 통계치를 구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150명(50.0%)이며 가족구성 형태는 부부와 자녀(미혼)가 103명(34.3%), 부부가 98명(3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이 104명(34.7%), 고졸이 103명(34.3%), 전문대가 43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실태는 보통이 173명(57.7%)로 가장 많았으며, 여유가 있는 편이 81명(27.0%), 어려운 편이 32명(10.7%)의 순이며, 월 평균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78명(26.0%)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19.3%), 100~200만원 미만(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 4.2 신중년세대의 남녀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 차이검증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Table 1>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남녀별 차이검증 (N=300)

변수	Male (N=150)		Female (N=150)		t-검증	
	M(SD)	M(SD)	M(SD)	M(SD)		
사회적지지 전체	3.44 (.60)	3.60 (.51)			-2.44*	
사회적지지	정서적	3.46 (.70)	3.61 (.62)			-2.01*
	평가적	3.52 (.66)	3.65 (.60)			-1.77
	정보력	3.44 (.60)	3.61 (.51)			-2.51*
	물질적	3.35 (.71)	3.54 (.65)			-2.38*
회복탄력성 전체	3.46 (.49)	3.47 (.40)			-.19	
회복탄력성	통제성	3.43 (.54)	3.44 (.44)			-.10
	긍정성	3.48 (.58)	3.48 (.54)			.00
	사회성	3.46 (.53)	3.48 (.52)			-.38
노후준비도 전체	3.18 (.51)	3.29 (.50)			-1.84	
노후준비도	경제적	3.11 (.63)	3.09 (.68)			.29
	신체적	3.26 (.61)	3.51 (.56)			-3.65***
	여가적	2.81 (.73)	2.91 (.78)			-1.11
	관계적	3.41 (.72)	3.53 (.77)			-1.39

\*p<.05, \*\*p<.01, \*\*\*p<.001

신중년 남녀세대는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전체( $t=-2.44, p<.05$ )와 하위변인인 정서적( $t=-2.01, p<.05$ ), 정보력( $t=-2.51, p<.05$ ), 물질적( $t=-2.38, p<.05$ ) 그리고 노후준비도 하위변인인 신체적( $t=-3.6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도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중년세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 차이 검증

신중년 남녀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노후준비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Post-hoc)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에서 Scheff 방법을 활용하였다.

#### 4.3.1 신중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Table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 검증 (N=300)

변인	사회적지지																
	전체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N	M(SD)	F	S	M(SD)	F	S	M(SD)	F	S	M(SD)	F	S	M(SD)	F	S	
독신 <sup>a</sup>	37	3.20(.69)			3.19(.82)			3.23(.72)			3.26(.60)			3.14(.88)			
부부 <sup>b</sup>	98	3.53(.56)			3.56(.69)			3.55(.64)			3.53(.54)			3.46(.67)			
A	부부+미혼자 <sup>c</sup>	103	3.63(.46)	4.16	n/a	3.64(.54)	3.57	n/a	3.71(.56)	3.89	n/a	3.60(.53)	2.86	n/a	3.55(.56)	3.02	n/a
	부부+기혼자 <sup>c</sup>	39	3.65(.55)	**		3.66(.61)	**		3.71(.56)	**		3.67(.59)	*		3.55(.67)	*	
	본인+미혼자 <sup>c</sup>	15	3.30(.68)			3.29(.70)			3.44(.79)			3.36(.65)			3.10(.87)		
	본인+기혼자 <sup>c</sup>	8	3.43(.53)			3.32(.72)			3.56(.43)			3.54(.52)			3.31(.76)		
B	여유있는편 <sup>a</sup>	94	3.65(.43)			3.71(.53)			3.68(.49)			3.59(.50)			3.62(.49)		
	보통 <sup>b</sup>	173	3.53(.58)	11.72	ab >c	3.52(.70)	9.82	ab >c	3.60(.66)	7.30	ab >c	3.56(.55)	7.20	ab >c	3.44(.71)	64	ab >c
	어려운편 <sup>c</sup>	300	3.52(.56)	***		3.13(.66)	***		3.21(.74)	***		3.19(.68)	***		2.95(.80)	***	
C	100만원미만 <sup>a</sup>	31	3.66(.76)			3.71(.84)			3.70(.86)			3.69(.70)			3.54(.82)		
	200만원미만 <sup>b</sup>	57	3.33(.56)			3.32(.68)			3.46(.61)			3.33(.57)			3.23(.75)		
	300만원미만 <sup>c</sup>	78	3.45(.55)	3.09	n/a	3.44(.67)	3.14	n/a	3.47(.61)	1.96	n/a	3.49(.49)	2.57	n/a	3.39(.68)	2.51	n/a
	400만원미만 <sup>d</sup>	58	3.54(.55)	*		3.55(.60)	**		3.60(.63)	*		3.58(.60)	*		3.41(.69)	*	
	500만원미만 <sup>e</sup>	46	3.67(.42)			3.73(.51)			3.70(.51)			3.62(.49)			3.61(.53)		
	500만원이상 <sup>f</sup>	30	3.68(.50)			3.68(.61)			3.76(.58)			3.62(.52)			3.67(.55)		

	초졸 <sup>a</sup>	16	3.43(.68)		3.44(.78)		3.44(.74)		3.47(.60)		3.38(.73)		
	중졸 <sup>b</sup>	34	3.46(.69)		3.51(.76)		3.54(.74)		3.46(.64)		3.30(.85)		
D	고졸 <sup>c</sup>	103	3.36(.57)	5.20 ***	n/a	4.31 **	n/a	5.69 ***	n/a	4.13 **	n/a	2.82 *	n/a
	전문대졸 <sup>d</sup>	43	3.57(.46)		3.64(.58)		3.63(.52)		3.55(.50)		3.45(.65)		
	4년제이상 <sup>e</sup>	104	3.70(.48)		3.70(.57)		3.79(.57)		3.69(.51)		3.61(.63)		

\*p<.05, \*\*p<.01, \*\*\*p<.001

가족형태(A) : a=독신, b=부부+자녀(미혼), c=부부+자녀(기혼), d=본인+자녀(미혼), e=본인+자녀(기혼), 생활실태(B) : a=아주 여유, b=여유 있는 편, c=보통, d=어려운 편, e=아주 어려움, 월 평균수입(C) : a=100만원 미만, b=100~200만원 미만, c=200~300만원 미만, d=300~400만원 미만, e=400~500만원 미만, f=500만원 이상, 최종학력(D) : a=초졸, b=중졸, c=고졸, d=전문대졸, e=4년제 이상

월 평균수입의 하위변인 사회적지지 하위변인 평가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에서 사회적지지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생활실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하위변인 물질적(F=12.64, p<.001)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은 전체적(F=11.72, p<.001), 정서적(F=9.82, p<.001), 평가적(F=7.30, p<.001), 정보력(F=7.20, p<.001)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생활실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에

서 동일하게 여유있는편과 보통이 어려운편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여유있는편과 보통 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3.2 신중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검증 (N=300)

변인	회복탄력성													
	전체			통계성			긍정성			사회성				
	N	M(SD)	F	S	M(SD)	F	S	M(SD)	F	S	M(SD)	F	S	
A	독신 <sup>a</sup>	37	3.21(.42)			3.14(.46)			3.29(.58)			3.19(.52)		
	부부 <sup>b</sup>	98	3.47(.39)			3.42(.43)			3.51(.48)			3.48(.52)		
	부부+미혼자녀 <sup>c</sup>	103	3.58(.45)	5.86 ***	c>e	3.56(.47)	6.68 ***	f>a,e	3.60(.58)	4.57 ***	c>e	3.57(.51)	3.26 **	n/a
	부부+기혼자녀 <sup>c</sup>	39	3.49(.45)			3.46(.53)			3.52(.51)			3.50(.49)		
	본인+미혼자녀 <sup>d</sup>	15	3.14(.52)			3.10(.53)			2.98(.63)			3.33(.54)		
B	본인+기혼자녀 <sup>d</sup>	8	3.55(.46)			3.78(.54)			3.40(.52)			3.47(.55)		
	여유있는편 <sup>a</sup>	94	3.62(.42)			3.59(.46)			3.66(.51)			3.62(.51)		
	보통 <sup>b</sup>	173	3.42(.42)	12.29 ***	b>c a>b>c	3.37(.45)	7.79 ***	a>b>c c	3.45(.54)	11.18 ***	a>b >c	3.44(.52)	8.66 ***	a>b>c
	어려운편 <sup>c</sup>	33	3.22(.52)			3.31(.65)			3.16(.63)			3.20(.51)		
	C	100만원미만 <sup>a</sup>	31	3.31(.43)			3.22(.45)			3.37(.51)			3.35(.52)	
200만원미만 <sup>b</sup>		57	3.26(.36)			3.27(.40)			3.25(.53)			3.25(.44)		
300만원미만 <sup>c</sup>		78	3.41(.44)	9.28 ***	c>a,b	3.35(.47)	9.39 ***	e>b,a f>d,c, b,a	3.41(.54)	6.53 ***	e>b f>c,a ,b	3.47(.59)	5.11 ***	f>a,b
400만원미만 <sup>d</sup>		58	3.51(.42)			3.48(.51)			3.53(.51)			3.54(.45)		
500만원미만 <sup>e</sup>		46	3.62(.39)			3.63(.42)			3.69(.53)			3.54(.44)		
500만원이상 <sup>f</sup>		30	3.81(.50)			3.83(.52)			3.82(.60)			3.78(.58)		
D	초졸 <sup>a</sup>	16	3.20(.33)			3.15(.40)			3.30(.49)			3.16(.32)		
	중졸 <sup>b</sup>	34	3.32(.38)			3.39(.39)			3.30(.50)			3.28(.44)		
	고졸 <sup>c</sup>	103	3.33(.43)	9.84 ***	d>a e>c,b, a	3.30(.50)	6.64 ***	e,d>a	3.33(.55)	7.28 ***	n/a	3.36(.47)	7.54 ***	d>a e>b,a
	전문대졸 <sup>d</sup>	43	3.56(.46)			3.51(.52)			3.60(.46)			3.56(.61)		
	4년제이상 <sup>e</sup>	104	3.64(.43)			3.59(.47)			3.67(.57)			3.65(.52)		

\*p<.05, \*\*p<.01, \*\*\*p<.001

가족형태(A) : a=독신, b=부부+자녀(미혼), c=부부+자녀(기혼), d=본인+자녀(미혼), e=본인+자녀(기혼), 생활실태(B) : a=아주 여유, b=여유 있는 편, c=보통, d=어려운 편, e=아주 어려움, 월 평균수입(C) : a=100만원 미만, b=100~200만원 미만, c=200~300만원 미만, d=300~400만원 미만, e=400~500만원 미만, f=500만원 이상, 최종학력(D) : a=초졸, b=중졸, c=고졸, d=전문대졸, e=4년제 이상

사회인구학적 특성(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과 회복탄력성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도 모든 집단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생활실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전체( $F=12.29, p<.001$ )에서 가장 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보통은 어려운편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가 있고, 여유 있는편은 보통에 비해 높게, 보통은 어려운편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형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통제성( $F=6.6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 결과, 본인+기혼자녀가 독신, 본인+미혼자녀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독신과 본인+미혼자녀 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실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통제성( $F=9.39, p<.001$ )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사후분석 결과, 500만원 미만은 200~100만원 미만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고, 500만원

이상은 400~100만원 미만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회복탄력성 전체( $F=9.8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전문대졸은 초졸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4년제 이상은 초·중·고졸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고, 초·중·고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4.3.3 신중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 검증 (N=300)

변인	노후준비도																	
	전체			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관계적		
	N	M(SD)	F	S	M(SD)	F	S	M(SD)	F	S	M(SD)	F	S	M(SD)	F	S		
A	독신 <sup>a</sup>	37	2.90(.48)			2.79(.65)			3.31(.47)			2.74(.64)			2.69(1.01)			
	부부 <sup>b</sup>	98	3.23(.44)			3.01(.63)			3.41(.53)			2.97(.73)			3.60(.57)			
	부부+미혼자녀	103	3.33(.51)	5.35	f>e,a	3.25(.64)	3.04	n/a	3.43(.65)	1.00	f>c	2.85(.76)	2.00	n/a	3.63(.64)	13.00	c,d,b	
	부부+기혼자녀	39	3.23(.47)	35.00		3.17(.55)	64.00		3.30(.57)	90.00		2.63(.75)	04.00	n/a	3.63(.58)	06.00	f>a	
	본인+미혼자녀	15	3.03(.68)			3.04(.79)			3.14(.66)			2.80(1.09)			3.04(.87)			
B	본인+기혼자녀	8	3.53(.57)			3.43(.91)			3.85(.46)			3.35(.74)			3.42(.54)			
	여유있는편 <sup>a</sup>	94	3.50(.45)	24.00	b>c	3.39(.58)	18.00	b>c	3.62(.62)	12.00	a>	3.15(.73)	11.00	a>	3.71(.58)	10.00	a>c	
	보통 <sup>b</sup>	173	3.15(.47)	84.00		3.02(.63)	82.00		3.30(.55)	44.00	b,c	2.74(.73)	19.00	b,c	3.40(.74)	14.00		
C	어려운편 <sup>c</sup>	33	2.91(.54)	***	a>b>c	2.68(.69)	***	a>b>c	3.18(.57)	***	b,c	2.62(.75)	***	b,c	3.10(.96)	***		
	100만원미만 <sup>a</sup>	31	3.15(.43)			2.75(.55)			3.42(.55)			2.69(.63)			3.62(.84)			
	200만원미만 <sup>b</sup>	57	2.96(.39)			2.66(.32)		c>b	3.23(.53)			2.75(.71)			3.14(.80)			
	300만원미만 <sup>c</sup>	78	3.18(.51)	7.00	f,e,d>	3.10(.61)	14.00		3.31(.61)	1.00	n/a	2.82(.80)	1.00	n/a	3.38(.77)	4.00	f>b	
	400만원미만 <sup>d</sup>	58	3.31(.53)	74.00	b	3.22(.70)	87.00	f,e,d	3.44(.57)	51.00	n/a	2.88(.80)	42.00	n/a	3.55(.68)	61.00		
D	500만원미만 <sup>e</sup>	46	3.45(.39)			3.44(.49)		>a,b	3.52(.62)			3.07(.62)			3.59(.52)			
	500만원이상 <sup>f</sup>	30	3.49(.62)			3.51(.68)			3.47(.75)			2.95(.93)			3.81(.69)			
	초졸 <sup>a</sup>	16	3.03(.39)			2.82(.58)			3.14(.48)			2.93(.69)			3.22(.59)			
	중졸 <sup>b</sup>	34	3.18(.49)			2.79(.61)	4.00		3.47(.58)			2.86(.81)			3.53(.83)			
	고졸 <sup>c</sup>	103	3.17(.50)	2.00	n/a	3.03(.68)	95.00	n/a	3.31(.57)	2.00	n/a	2.77(.69)	.60	n/a	3.44(.76)	.61	n/a	
전문대졸 <sup>d</sup>	43	3.29(.50)			3.24(.55)			3.33(.57)			2.93(.76)			3.51(.67)				
4년제이상 <sup>e</sup>	104	3.32(.53)			3.25(.65)			3.43(.64)			2.91(.81)			3.49(.76)				

\*p<.05, \*\*p<.01, \*\*\*p<.001

가족형태(A) : a=독신, b=부부+자녀(미혼), c=부부+자녀(기혼), d=본인+자녀(미혼), e=본인+자녀(기혼), 생활실태(B) : a=아주 여유, b=여유 있는 편, c=보통, d=어려운 편, e=아주 어려운 편, 월 평균수입(C) : a=100만원 미만, b=100~200만원 미만, c=200~300만원 미만, d=300~400만원 미만, e=400~500만원 미만, f=500만원 이상, 최종학력(D) : a=초졸, b=중졸, c=고졸, d=전문대졸, e=4년제 이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중 생활실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 $F=24.84, p<.001$ )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보통은 어려운편에 비

해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여유있는편은 보통에 비해, 보통은 어려운편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 $F=5.35, p<.001$ )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본인+기혼자녀는 본인+미혼자녀와 독신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본인+미혼자녀와 독신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 평균수입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하위변인 경제적( $F=14.87, p<.001$ )에서 높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300만원 미만은 200만원 미만에 비해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5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20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에 비해 높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 경제적( $F=4.95,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4 신중년세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Table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또한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측정 변인별 정상분포 조건을 검증하였다.

<Table 5>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 (N=300)

변수	S				R			P			
	S1	S2	S3	S4	R1	R2	R3	P1	P2	P3	P4
S1	1										
S2	.77**	1									
S3	.69**	.71**	1								
S4	.68**	.71**	.69**	1							
R1	.45**	.46**	.52**	.41**	1						
R2	.54**	.52**	.54**	.50**	.61**	1					
R3	.55**	.51**	.52**	.51**	.59**	.60**	1				
P1	.35**	.27**	.33**	.38**	.46**	.43**	.38**	1			
P2	.30**	.33**	.33**	.23**	.28**	.28**	.23**	.43**	1		
P3	.24**	.20**	.27**	.33**	.36**	.35**	.23**	.45**	.46**	1	
P4	.46**	.43**	.42**	.49**	.40**	.47**	.43**	.39**	.41**	.30**	1
M	3.53	3.58	3.53	3.44	3.43	3.48	3.47	3.10	3.39	2.86	3.47
SD	.66	.63	.56	.69	.49	.56	.52	.66	.60	.76	.75
왜도	-.46	-.38	-.33	-.46	-.05	-.30	.41	.04	-.17	.07	-.51
첨도	.76	.59	.66	.41	.20	.18	.08	-.36	.30	-.32	.4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S=사회적지지, S1=정서적, S2=평가적, S3=정보력, S4=물질적  
R=회복탄력성, R1=통제성, R2=긍정성, R3=사회성, P=노후준비도,  
P1=경제적, P2=신체적, P3=여가적, P4=관계적

검증 결과, 측정 변수들 간에 절댓값  $r=.20 \sim r=.77$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 $r=.45 \sim .61$ ),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r=.20 \sim .49$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r=.23 \sim .46$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 신중년세대의 남녀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신중년 남녀세대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인을 사회인구학적 특성(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을 단계적 투입했을 때 통제변인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 4.5.1 남성이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성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Table 6>과 같이 살펴보았다.

<Table 6> 남성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N=150)

변수	Male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3.07	1.72	1.35
가족형태(더미)	.17(2.37)**	.078(1.20)	.05(.79)
생활실태	-.33(-4.25)***	-.16(-2.27)*	-.17(-2.48)**
월 평균수입	.16(1.89)	.18(2.41)**	.12(1.69)
최종학력	.17(2.31)*	.04(.53)	-.00(-.03)
사회적지지		.47(6.51)***	.24(2.62)**
회복탄력성			.34(3.65)***
$R^2(Adj-R^2)$	.31(.29)	.47(.45)	.51(.49)
F	16.10***	25.04***	24.88***
DW	1.88	1.98	2.16

\* $p<.05$ , \*\* $p<.01$ , \*\*\* $p<.001$ , 가족형태(더미) : 0=독신, 본인+자녀(미혼, 기혼), 1=부부, 부부+자녀(미혼, 기혼)

[모형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이 노후준비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31.0%로 나타났으며,  $F=17.19(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 $\beta=.17, p<.01$ ), 생활실태( $\beta=.33, p<.001$ ), 최종학력( $\beta=.17, p<.05$ )은 노후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단계]에서는 사회적지지를 투입한 결과, 노후준비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해 약 16.0% 증가한 47.0%고,  $F=25.04(p<.001)$ 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실태( $\beta=.16, p<.05$ ), 월 평균수입( $\beta=.18, p<.01$ ), 사회적지지( $\beta=.47, p<.001$ )가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었다. [모형 3단계]에서는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노후준비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모형 2에 비해 4.0% 증가한 51.0%고,  $F=24.88(p<.001)$ 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생활실태( $\beta=.17, p<.01$ ), 사회적지지( $\beta=.24, p<.01$ ), 회복탄력성( $\beta=.34, p<.001$ )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실태는 모든 모형에서 노후준비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월 평균수입은 사회적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만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모형 2, 3에서 정(+)적으로 노후준비도에 상대적 영향을 미친다.

**4.5.2 여성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성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여성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N=150)**

변수	Female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t)		
상수	3.57	2.42	1.79
가족형태(더미)	.07(.89)	-.01(-.12)	-.02(-.33)
생활실태	-.26(-3.24)***	-.24(-3.23)**	-.25(-3.39)***
월 평균수입	.23(2.63)**	.25(3.02)**	.15(1.80)
최종학력	-.05(-.63)	-.10(-1.31)	-.13(-1.67)
사회적지지		.36(4.97)***	.18(2.13)*
회복탄력성			.33(3.61)***
R <sup>2</sup> (Adj-R <sup>2</sup> )	.17(.15)	.29(.27)	.35(.32)
F	7.32***	11.76***	12.80***
DW	2.01	2.05	1.92

\* $p<.05$ , \*\* $p<.01$ , \*\*\* $p<.001$ , 가족형태(더미) : 0=독신, 본인+자녀(미혼, 기혼), 1=부부, 부부+자녀(미혼, 기혼)

[모형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이 노후준비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17.0%로 나타났고,  $F=7.32(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 생활실태( $\beta=.26, p<.001$ ), 월 평균수입( $\beta=.23, p<.01$ )은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단계]에서는 사회적지지를 투입한 결과, 노후준비도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해 약 12.0% 증가한 29.0%고,  $F=11.76(p<.001)$ 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활실태( $\beta=.24, p<.01$ ), 월 평균수입( $\beta=.25, p<.01$ ), 사회적지지( $\beta=.36, p<.001$ )가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단계]에서는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노후준비도 설명력은 모형 2에 비해 약 6.0% 증가한 35.0%고,  $F=12.80(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다. 생활실태( $\beta=.25, p<.001$ ), 사회적지지( $\beta=.18, p<.05$ ), 회복탄력성( $\beta=.33, p<.001$ )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생활실태는 모든 모형에서 부(-)적으로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월 평균수입은 모형 1, 2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모형 2, 3에서 정(+)적으로 노후준비에 상대적 영향을 미쳤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신중년 남녀세대(53세~61세)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가족형태, 최종학력,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또한 각 변인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남녀별 차이 검증 결과, 사회적지지,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하위변인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차이 검증 결과, 월 평균수입에 따른 사회적지지 하위변인인 평가적은 제외 한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가족형태,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 최종학력에서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가족형태와 월 평균수입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와 하위변인(경제적, 관계적), 생활실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관계적), 최종학력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인 경제적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검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생활실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노후준비도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와 하위변인(신체적, 관계적), 생활실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관계적), 월 평균수입에 따른 노후준비도 전체와 하위변인(경제적, 관계적)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 결과,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지지(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회복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노후준비도(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관계적)의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남녀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경우, 각 모형에서 통제변인과 독립변수가 노후준비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모형 1은 통제변인인 가족형태, 생활실태, 최종학력, 모형 2에서는 통제변인인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과 사회적지지, 모형 3은 통제변인인 생활실태와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에서 노후준비에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인 생활실태, 월 평균수입에서 여성의 노후준비도에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중년세대 남녀는 통제변인인 생활실태가 모든 모형에서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모형 2와 3에서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초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생산연령인구 주역인 신중년 남녀세대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은 노후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신중년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책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남성에 비해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 신중년 세대를 위한 사회적지지의 방안 모색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대적 특화된 일자리 교육 및 제공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과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신중년 남녀세대는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사회적 전반에서 다각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민간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제도 마련을 위한 과감한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신중년 세대들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활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이데일리 (2022.8.19.). 전세계 최저 출산율 0.81명... 가파른 인구절벽.
- [2] 한의신문 (2022.8.19.). “신중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3] 통계청 (2021.9.29.). 2021년 고령자 통계.
- [4] 이국권 (2020). 신중년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지역복지정책*, 31, 109-125.
- [5]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 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 [6] 박주희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1-17.
- [7] 홍서연, 김미량 (2020). 보편적 노후준비도 척도 개발. *여가학연구*, 18(4), 35-51.
- [8] 박명아, 조시울, 신혜리, 박설우, 김영선 (2017).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7(1), 29-49.
- [9] 최은영 (2015).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0] 강미희 (2020). 사회적 지지와 노년기의 행복에 관한 연구 :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4(2), 47-70.
- [11] 정경화, 김기승 (2020). 중년재직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퇴직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4), 452-462.
- [12] Cassel, J. Psychological processes and stress: Theoretical for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4 (1974): 471-482.
- [13] 임경임 (2012). 유아의 서번트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사회적지지, 의사결정력간의구조적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정재갑 (2020).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년여성의 자기결정성 요인과 정서적 안정감,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서울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황주경, 강순희 (2021). 신중년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11(1), 115-134.
- [16] 이상주 (2020). 퇴직준비역량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7] 김주환 (2021). *회복탄력성*. 서울 : 위즈덤하우스 출판사.
- [18] 정경화 (2020). 중년재직자의 명리직업선정성, 회복탄력성, 퇴직태도, 퇴직준비 간의 인과관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 상 옥(Hong, Sang Ook)**



- 소속 : 2022년 10월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교수
- 학력 : 1990년 3월 : 일본오사카 시립대학학술박사 (생활복지학전공)
- 현재 : 한국복지상담학회 회장
- 관심분야 : 가족코칭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
- E-Mail : sanguk@yu.ac.kr

**김 건 희(Kim, Geon Hui)**



- 2018년 8월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가족복지상담 박사 수료
- 현재 : 구미시청 공무원
- 관심분야 : 복지, 상담, 정책
- E-Mail : kmj0413k@naver.com